

금호타이어, 최종 매각결정 완료!

부채비율 낮추어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 건설·고속사업도 강화

금호산업은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군인공제회에 대한 타이어사업 부문 매각을 최종 의결했다.

군인공제회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금호산업 주주총회 의결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 승인 등 조건부로 총 1조4278억 원에 체결됐던 금호타이어 매각 본 계약이 완전히 발효될 수 있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금호산업은 각각 지분 50% 및 30%의 비율로 6월 말까지 타이어부문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의 지분은 코오롱, 고려제강, LG화재 등이 나누어 갖기로 했으며 외국계 펀드도 10%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타이어사업 매각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2002년 말 390%대에 이르던 부채비율을 120%대로 낮추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타이어 외에 건설, 고속사업을 대폭 강화해 건설사업 부문은 공공·토목 부문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 비중 확대로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고속사업 부문은 신규노선 및 신상품 개발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06/03>